

#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서 측정방법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차이\*

- 자기보고법과 또래 지명법의 비교

## Cross-Informant Measures of Peer Victimization on Psychosocial Mal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 Comparisons between Self-Reports and Peer Nominations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조교수 신유림\*\*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Shin, Yoo-lim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ross-informant measures of peer group victimization. The subjects were 460 children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assessed their own victimization, feelings of loneliness, and self-perception. They also completed peer nominations concerning peer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self-reported victimization is more predictive of loneliness and self-perception, whereas victimization from peer nominations is more predictive of peer rejection and acceptance.

---

▲주요어(Key Words) : 또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 자기 보고법(self-report), 또래 지명법(peer nomination), 외로움(loneliness), 또래수용(peer acceptance), 자아 지각(self-perception)

### I. 서론

또래 괴롭힘이란 더 강한 아동이 더 약한 아동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의 결과로 이로 인한 심리 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다. 또래 괴롭힘의 영향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반복적인 또래 괴롭힘에 노출된 아동은 자기 존중감이 낮으며, 우울증과 외로움의 수준이 높고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양원경 · 도현심, 1999; Olweus, 1994; Schwartz, McFadyen-Ketchum, Dodge et al., 1998).

또래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보고법이나 또래 지명법을 사용해왔다.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법은 피해 아동이 직접 괴롭힘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이 교실, 운동장 및 기타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

\* 본 연구는 200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 신유림(E-mail : yoolim@catholic.ac.kr)

므로 피해 당사자인 아동이 생태학적으로 더욱 타당한 피해 경험을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기 보고법을 통하여 아동 자신의 내적인 요인들이 측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아동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반면에 피해 경험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보고하려는 의도에서 아동의 개인차가 존재하여 이러한 개인차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aham & Juvonen, 1998; Perry et al., 1988).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인 또래 지명법을 보면, 정보원으로써 또래들은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학교 상황에서 유용한 관찰자일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주어진 평가 대상 아동에 대하여 다수 아동들의 평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Rigby, 1996). 그러나 저학년 아동인 경우 또래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억하는 인지적인 능력이 미성숙하며, 피해 아동보다는 공격적인 아동의 행동을 더욱 쉽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또래 지명법을 저학년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자들이 보고한 피해 아동의 비율은 2%부터 40%로 큰 차이를 보인다(이훈구, 2000), 이러한 차이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 아동을 정의하고 선별하는 기준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의 차이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방법을 동일한 집단에 적용하여 측정 방법에 따른 피해자 아동의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또래 보고법에 비해 자기 보고법을 사용한 경우 피해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두 평가 사이의 일치도도 높지 않았다(Graham & Juvonen, 1998). 이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평가 방법의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법 및 또래 지명법으로 연구대상을 또래 괴롭힘의 피해 아동 집단과 피해 아동이 아닌 비교집단의 아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방법에 의해 모두 피해 아동으로 구분된 집단(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 보고법으로만 피해아동으로 구분된 집단(자기피해/또래비교), 또래 지명법으로만 피해아동으로 구분된 집단(자기비교/또래피해)과 두 측정 방법 모두 비교 집단으로 구분된 집단(자기비교/또래비교).

이를 기초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동일 집단 아동들에게 자기 보고법과 또래 보고법을 함께 적용하여, 피해 아동의 빈도를 비교해보고, 두 방법에 의해 일치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더불어 자기 보고법 및 또래 지명법을 통해 각각 피해 집단 아동과 비교 집단 아동으로 선별하고 이를 4가지 하위 유형으로(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

피해/또래비교, 자기비교/또래피해, 자기비교/또래비교) 구분하여 아동의 하위 집단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표상이나 도식의 개념에서 볼 때, 개인은 세상에 대한 지식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평가한다(Fiske & Taylor, 1991). 이러한 인식의 틀은 그 대상이 자신이나 외부 대상이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개인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Fiske & Taylor, 1991). 이를 근거해 볼 때, 또래 괴롭힘의 측정방법과 관련해서 측정방법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다른 측면을 예언해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기 보고법을 사용할 경우 또래 괴롭힘에 대한 아동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게 되므로, 우울증, 불안감, 외로움과 같은 개인의 심리상태와 같은 개인내적인 적응(intrapersonal adjustment)과 관련성이 있다(Fiske & Taylor, 1991). Graham & Juvonen, 1998). 또래 보고법으로 측정된 괴롭힘은 또래 거부 및 수용과 같은 대인 관계적 적응(interpersonal adjustment)을 예언해주었다(Hodges & Perry, 1999; Perry et al., 1988). 또래 괴롭힘은 집단내의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아동 자신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각할지라도, 학급의 아동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이상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측정방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 측정의 괴롭힘 정도가 아동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언해주었으며(Boivin et al., 1995), 자기 보고법으로 측정된 또래 괴롭힘이 또래 거부와 같은 대인간의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었다(Neary & Joseph, 1994). 따라서 또래 괴롭힘의 측정 방법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해주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두 가지 측정 방법에 의해 측정된 또래 괴롭힘의 수준이 심리적 적응측면을 다르게 예언해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Graham & Juvonen, 1998; Hodges & Perry, 1999; Perry et al., 1988) 기초로 심리적 적응변인들은 외로움, 자아 지각, 또래 집단의 수용 및 거부로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두 가지 측정방법을 적용했을 때 또래 괴롭힘의 피해 아동집단에 소속여부가 일치되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의 아동집단을 보고하였다(Graham & Juvonen, 1998; Perry et al., 1988). 첫 번째 집단의 경우는 자신을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로 지각하지만 또래들로부터는 피해자로 지목되는 않은 소수의 아동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Perry와

동료들은(1988) 이러한 아동들을 피해 망상적 집단(paranooids)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하위 집단은 또래들로부터는 피해자로 지목되지만 자신은 이를 부정하는 아동들로 Perry와 동료들(1988)은 이러한 아동들이 방어적 집단(deniers)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들은 어떤 특성이 있으며 또한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측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목적은 또한 이러한 하위 집단별로 심리 적응적 측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목적 하에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보고법과 또래 지명법에 따른 피해아동의 빈도는 어떠한가? 4가지 하위 유형(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피해/또래비교, 자기비교/또래피해, 자기비교/자기비교)의 빈도는 어떠한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하위 유형별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기 보고법과 또래 지명법에 따라 심리적응(외로움, 자아 지각, 또래 수용 및 거부)의 예언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4가지 하위 집단(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피해/또래비교, 자기비교/또래피해, 자기비교/자기비교)에 따라 심리적응(외로움, 자아 지각, 또래 수용 및 거부)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천시에 위치한 4개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표집된 5, 6학년 아동 460명이다. 학년 별 연구 대상의 수는 5학년 130명이었으며, 6학년은 330명이다. 대상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자 아동이 240명(51.7%)이며 여자 아동이 220명(48.3%)였다. 학급별 아동 수는 평균 4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을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의 생각을 신뢰성 있게 보고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으며(이민식, 1999),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므로(Schwartz, 2000), 또래 괴롭힘의 발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시기는 12월인 2학기 말로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선정된 학급별 아동의 명단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 후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완성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 2. 측정 도구

### 1) 자아 보고법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가 사용한 자아 보고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에 대한 자아 지각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학급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괴롭힘의 정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예: 우리 반의 아이들이 나에게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쁘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의 4점 척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합산하고 평균을 산출한 후 이 점수를 아동 자신이 지각한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점수로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에 대한 자아 지각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89로 나타났다.

### 2) 또래 지명법

Schwartz 등(2002)이 사용한 Peer Nomination Index(PNI)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관계적 및 외현적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우리 반의 아이들 중에 자주 맞거나 다른 아이들이 밀어서 넘어지는 사람) 또래 지명법을 실시하기 전에 아동들에게 학급 아동들의 이름과 번호가 있는 명단을 배부해주고, 각 문항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3명의 아동을 선택하여 각 아동의 번호를 적도록 하였다. 괴롭힘 피해 점수는 5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학급의 또래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각 학급별로 Z 점수로 변환하였다. 또래 지명법에 대한 신뢰도를 내적 일치도로 계산한 결과 .87로 나타났다.

### 3) 외로움

아동의 외로움은 Loneliness & Social Dissatisfaction Scale (Asher & Wheeler, 198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본인이 지각하는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6개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4점), '약간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점), '절대 아니다'(1점)로 측정

된다. 외로움 척도의 내적 일치도 값은 .89로 나타났다.

#### 4) 자아 지각

아동의 자아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 중 기존 연구들(Graham & Juvonen, 1998; Ladd & Kochenderfer-Ladd, 2002) 기초로 또래 괴롭힘과 관련성이 높은 하위 영역으로 제시된 사회적 자아 지각 및 학업적 자아 지각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아동 자신이 지각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과 비슷한 정도를 '정말 나와 비슷하다'(4점), '약간 비슷하다'(3점), '약간 비슷하지 않다'(2점), '전혀 비슷하지 않다'(1점)로 측정한다. 자아 지각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7로 나타났다.

#### 5) 또래 수용 및 거부

또래 집단으로 아동이 수용 및 거부되는 정도는 Schwartz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지명법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학급의 아동들에게 학급의 명단을 배부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아동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각 아동이 학급의 아동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 빈도를 합산하였다. 이 빈도를 학급별 평균 긍정적 지명 빈도를 기준으로 Z 점수로 변환하여 또래 수용 점수로 계산하였다. 또한 좋아하지 않는 아동 3명을 각각 지명하도록 하여 각 아동이 학급의 아동들로부터 받은 부정적 지명 빈도를 합산하였다. 이 빈도를 학급별 평균 부정적 지명빈도를 기준으로 Z 점수로 환산하여 또래 거부 점수로 계산하였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시기는 12월인 2학기 말로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선정된 학급별 아동의 명단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 후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

에서 완성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Schwartz(2000)의 연구를 기초로 평균에서 +0.7SD 이상의 또래 괴롭힘 점수를 받은 아동을 피해 집단 아동으로 나머지 아동은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측정 방법에 따른 피해 아동과 비교 아동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근거로 아동들을 4가지 하위 집단(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피해/또래비교, 자기비교/또래피해, 자기비교/자기비교)으로 구분하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하위 집단 빈도의 차이 카이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측정방법에 따른 심리적응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다변량 분석(MANOVA) 및 사후 검증을 통하여 4개의 하위 집단별(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피해/또래비교, 자기비교/또래피해, 자기비교/또래비교) 심리속변인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두 가지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 +0.7SD 이상의 또래 괴롭힘 점수를 받은 아동을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 아동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 보고법 결과에 따르면, 89명인 19.3%가 피해 집단 아동으로 371명인 80.7%가 비교집단 아동으로 구분되었다. 또래 지명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39명인 8.4%가 피해 집단 아동이었고, 421명인 91.6%가 비교 집단 아동들이었다. 이를 근거로 하위집단을 아동들은 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피해/또래비교, 자기비교/또래피해, 자기비교/또래비교로 구분하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피해 아동의 하위 집단의 빈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카이 검증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하위집단의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이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피해 아동의 하위 유형

단위: 명(%)

성	자기피해/또래피해	자기피해/또래비교	자기비교/또래 피해	자기비교/또래비교	합
남아	15(6.3)	35(14.8)	11(4.6)	176(74.3)	237(100)
여아	4(1.8)	35(15.7)	9(4.0)	175(78.5)	223(100)
합	19(4.1)	70(15.2)	20(4.3)	351(76.3)	460(100)

$\chi^2 = 6.151, df = 3, n.s.$

<표 2> 연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변인	1	2	3	4	5
1. 또래보고 피해					
2. 자기보고 피해	.250***				
3. 외로움	.298***	.545***			
4. 자아 지각	-.286***	-.461***	-.723***		
5. 또래 거부	.690***	.190***	.265***	-.230***	
6. 또래 수용	-.279***	-.108*	-.232***	.226***	-.325***

\*\*\*p<.001, \*p<.05

<표 3> 외로움과 자아지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외로움			자아 지각		
		Adjusted R <sup>2</sup>	ΔR <sup>2</sup>	β	Adjusted R <sup>2</sup>	ΔR <sup>2</sup>	β
Step 1	아동의 성	.000	.000	.019	.000	.002	.002
Step 2	자기보고 괴롭힘	.330	.330***	.502***	.245	.245***	-.415***
	또래지명 괴롭힘			.183***			-.187***
Step 3	자기보고 괴롭힘*또래지명 괴롭힘	.333	.003	.064	.256	.011	.086
전체 R <sup>2</sup>			.333***			.256***	
				F (4,441) = 55.025***	F (4,441) = 38.764***		

\*\* p<.01, \*\*\*p<.001

<표 2>와 같다. 또래 보고와 자기보고 피해점수의 상관관계는  $r=.250(p<.001)$ 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래 보고 피해 점수는 외로움( $r=.298, p<.001$ ) 및 또래 거부( $r=.690, p<.001$ )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자아 지각( $r=-.286, p<.001$ )과 또래 수용( $r=-.279, p<.001$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 보고 피해 점수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외로움( $r=.545, p<.001$ ) 및 또래 거부( $r=.190, p<.001$ )와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자아 가치감( $r=-.461, p<.001$ )과 또래 수용( $r=-.108, p<.001$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또래 지명이나 자아 보고에 의해 괴롭힘 정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으며, 부정적인 자아 지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기보다 거부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외로움과 자아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 변인들의 효과의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1단계로 투입된 아동의 성은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 아니었다. 2단계로 투입된 자기보고 괴롭힘( $\beta=.502, p<.001$ ) 과 또래 지명 괴롭힘 점수는( $\beta=.183,$

$p<.001$ )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두 변인은 아동의 외로움을 33%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 투입된 자기 보고 괴롭힘과 또래 지각 괴롭힘의 상호작용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의 성은 설명력이 없었으나, 2단계로 투입된 자기보고 괴롭힘( $\beta=.502, p<.001$ )과 또래 지명 괴롭힘 점수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beta=.183, p<.001$ ), 두 변인은 아동의 외로움을 24.5%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 투입된 자기 보고 괴롭힘과 또래 지각 괴롭힘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거부 및 수용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또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 변인들의 효과의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1단계로 투입된 아동의 성은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 아니었다. 2단계로 투입된 또래 지명 괴롭힘 점수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나( $\beta= -.269, p<.001$ ), 자기보고에 의한 괴롭힘은 설명력이 없었다. 두 변인은 아동의 또래 수용을 7.8%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 투입된 자기 보고 괴롭힘과 또래 지각 괴롭힘의 상

&lt;표 4&gt; 또래 수용 및 거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또래 수용			또래 거부		
		Adjusted R <sup>2</sup>	$\Delta R^2$	$\beta$	Adjusted R <sup>2</sup>	$\Delta R^2$	$\beta$
Step 1	아동의 성	.004	.004	.062	.002	.002	-.049
Step 2	자기 보고 괴롭힘	.082	.078***	-.040	.487	.485***	.017
	또래 지명 괴롭힘			-.269***			.696***
Step 3	자기보고 괴롭힘*또래지명 괴롭힘	.082	.000	-.011	.489	.002	-.053
전체 R <sup>2</sup>			.082***			.489***	
				F (4, 455) = 10.174***		F (4, 455) = 19.055***	

\*\*\*p&lt;.001

&lt;표 5&gt; 하위 집단별 적용 변인에서의 차이

(N=460)

변인	집 단	(n=19)	(n=70)	(n=20)	(n=351)	F
		자기피해/또래피해 M(SD)	자기피해/또래비교 M(SD)	자기비교/또래피해 M(SD)	자기비교/또래비교 M(SD)	
외로움		2.62(.85) <sup>a</sup>	2.25(.76) <sup>a</sup>	1.91(.57) <sup>b</sup>	1.56(.43) <sup>c</sup>	48.82***
자아지각		2.08(.65) <sup>a</sup>	2.45(.62) <sup>a</sup>	2.66(.61) <sup>b</sup>	3.05(.59) <sup>c</sup>	29.74***
또래수용		1.35(1.32) <sup>a</sup>	2.60(1.37) <sup>b</sup>	1.10(1.37) <sup>a</sup>	2.68(1.62) <sup>b</sup>	8.58***
또래거부		5.23(4.17) <sup>a</sup>	1.86(2.10) <sup>b</sup>	7.00(5.57) <sup>a</sup>	1.32(2.07) <sup>b</sup>	44.16***

\*\*\*p&lt;.001

주) 주어진 측정치에서 동일한 첨자는 평균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호작용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 거부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아동의 성은 설명력이 없었으나, 2단계로 투입된 또래 지명 괴롭힘 점수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beta=.696$ ,  $p<.001$ ), 2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은 아동의 또래 거부를 48.5%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 투입된 자기 보고 괴롭힘과 또래 지각 괴롭힘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예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집단에 따라 심리 적용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외로움, 자아지각, 또래수용 및 또래 거부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MANOVA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심리 측정변인에 대하여 주효과가 나타났다: 외로움  $F=48.82$ ,  $p<.001$ , 자아지각  $F=29.74$ ,  $p<.001$ , 또래 수용  $F=8.58$ ,  $p<.001$ , 또래 거부  $F=44.16$ ,  $p<.001$ . 사후검정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외로움 변인의 경우 자기피해/또래피해 집단과 자기피해/또래비교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교/비교 집단이 가장 낮은 외로움 정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자아 지각도 외로움 결과와 유사한 집단 간 차이의 경향을 보였는데, 자기피해/또래피해 집단과 자기피해/또래비교 집단의 경우 자아 지각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자

기비교/또래피해, 자기비교/자기비교 집단의 순서로 자아 지각의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집단의 수용정도를 비교해 보면, 자기피해/또래피해 집단과 자기비교/또래피해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용 정도를 보여 주므로, 자기 보고에 괴롭힘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또래지명에 의해 피해자로 구분된 아동들이 수용되는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집단의 거부정도를 비교해 보면,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 자기피해/또래피해 집단과 자기비교/또래피해 집단의 또래 거부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보고만에 의해 선별된 피해 아동들은 비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두 가지 측정 방법인 자기 보고법과 또래 지명법에 따른 피해 아동의 비율을 비교하고, 두 방법을 근거로 아동들을 4가지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심리종속변

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 연구 집단에게 두 가지 측정방법을 적용해본 결과, 피해 아동의 빈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또래 지명법과 비교해 볼 때 자기 보고법에 의한 피해 아동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raham과 Juvonen(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선별한 경우 과잉 또는 축소된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측정방법에 의한 또래 괴롭힘의 점수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하나 높지 않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이란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측면에서 아동 자신과 또래 사이에 의미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또래 괴롭힘의 평가에 있어서 한 아동 개인에 대한 본인 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자기 보고법으로 측정된 또래 괴롭힘의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내 적응 변인들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기 보고법이 또래가 지각하기 어려운 아동 자신의 심리내적인 결과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또래 지명법에 의한 괴롭힘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과 거부라는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예언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법 괴롭힘과 개인내 적응 변인의 관계에 또래 지명법의 괴롭힘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와 또래 지명 괴롭힘의 상호작용효과를 회귀분석에서 실시하였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법의 특성인 외부 관찰자가 접근할 수 없는 내적인 요인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때 개인내 적응에 대하여 자기보고법의 주효과만으로 설명됨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보고법의 괴롭힘 정도가 대인간 적응과 또래 지명법의 괴롭힘 관련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와 또래 지명 괴롭힘의 상호작용효과를 회귀분석에서 실시하였으나, 또래 지명법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했다. 이는 또래 지명법은 학급의 전체 아동들로부터 괴롭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또래 거부 및 수용과 같은 측면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 집단별로 차이를 분석했을 때에도 자기보고에 의한 피해 여부에 상관없이, 또래에 의해 피해자로 분류된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수용되기 어려우며 거부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아동이 자신을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각할지라도 학급의 다른 아동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동은 피해자라는 위치에서 학급의 다른 아동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보고법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로 인한 심리내적인 결과를 측정하는데 더 유용한 방법인 반면에, 또래 지명법은 대인간의 적응을 평가하는데 유용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기 보고로 측정된 또래 괴롭힘 수준은 자기 보고 방식으로 측정된 중속변인의 측정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이는 공유된 방법의 변량(shared method of variance)에 의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측정방법에 근거하여 구분된 4가지 하위 집단 중 측정 방법에 따라 피해 집단의 소속이 일치하지 않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또래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지각하는 소수의 아동집단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Graham & Juvonen, 1998; Perry et al., 1988) 'paranoids' 집단으로 명명된 아동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 주변의 또래들에 의해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신체적인 괴롭힘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괴롭힘보다는 간접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괴롭힘은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거나 같이 어울리지 않는 등 수동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이훈구, 2000). 이러한 수동적인 괴롭힘은 또래들이 관찰하거나 인식할 수 없으며 자기 보고식 방법을 통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정태연, 김인경, 김은정, 2001).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은 고의적으로 집단에서 아동을 소외시키거나 아동의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발생되며 직접적인 괴롭힘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직접적인 괴롭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Grotpeter, 1996). 또한 자기 평가의 경우 반응자의 성향에 따라 사실을 축소하거나 또는 과잉 반응하는 편파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Pellegrini, 1998), 이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경우 주어진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성향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또래에 의해 피해자로 지명되었으나 자신은 피해자로 지각하지 않은 소수의 아동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Graham과 Juvonen(1998)의 연구에서 'deniers'로 명명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paranoids' 집단과 달리 응답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자기 방어적인 성향

을 지닌 아동일 수 있다. 특히 또래 괴롭힘의 문항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응답자의 방어적인 반응이 개입될 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Austin & Joseph, 1996). 개인은 가능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하는 반응 편파를 보일 수 있고, 설문지의 내용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측정하는 것이 확연한 경우에 개인의 방어적 반응이 개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자신의 피해 정도나 상태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아동으로 관찰자에게는 괴롭힘으로 지각될 수 있는 분명한 상호작용적 행동을 피해 행동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Graham과 Juvonen(1998)에 의하면 이 아동들은 괴롭힘의 피해자로 자신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높은 역치(high threshold)의 특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규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행동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발생되고 평가되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주변의 또래들에 의한 평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 아동이 자신을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각할 지라도 또래들에 의해 그렇게 평가된다면 이 아동의 주변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학급의 교사나 또래와 같은 타인의 보고에만 기초하여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 아동들의 선별이 이루어진다면, 외로움 및 부정적인 자아 가치감과 같은 내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아동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아 보고만으로 피해 아동이 구별된다면, 또래집단에 의해 거부되는 피해자 아동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령기 동안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 경험이 야기하는 여러 발달적인 부적응 문제를 고려해볼 때(Parker & Asher, 1992), 이러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또래 괴롭힘의 측정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단일방법보다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 아동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측정방법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또래 괴롭힘의 평가자로 아동 자신 또는 또래는 정보원의

연령 또는 발달적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아동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보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인지적인 능력의 미성숙을 고려해볼 때 또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아닐 수 있다. Ladd와 Kochenderfer-Ladd(2002)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지명법을 적용해본 결과 이 연령 집단의 아동에게는 타당성이 낮은 도구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측정 방법의 유용성을 비교 검토해보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또래 괴롭힘과 적응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측정 시기에 따른 자아지각 및 또래 평가 결과의 안정성을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와 관련되어, 본 연구에서 적용된 연구도구에서 자기 보고법 또래 괴롭힘의 문항 중 외로움의 문항의 내용과 유사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있음을 다양한 측면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또래 괴롭힘의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타당한 또래 괴롭힘의 연구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5월 31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16일

#### 【참고문헌】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223-237.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구(2000). *사회문제와 심리학*. 서울: 범문사.
- 정태연·김인경·김은정(2001). 집단 따돌림의 측정 방법에 따른 행동평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 145-159.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s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Asher, S. R. & Wheeler, V. A.(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65-785.
- Crick, N. & Grotpeter, J.(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8, 367-380.
- Fiske, S. T. & Taylor, S. E.(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Graham, S. & Juvonen, J.(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82-599.
- Harter, S.(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manual*.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odges, E. V. E. & Perry, D. G.(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 Ladd, G. W. & Kochenderfer-Ladd, B.(2002). Identifying victims of peer aggression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Psychological Assessment*, 14, 74-96.
- Olweus, D.(1994).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UK: Blackwell.
- Parker, J. G. & Asher, S. R.(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o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31-241.
- Pellegrini, A. D.(1998). Bullies and victims in school : a review and call for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65-176.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Neary, A. & Joseph, S.(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gir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Rigby, K.(1996).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Jessica Kingsley.
- Schwartz, D.(2000). Subtypes of aggressor and victim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81-192.
- Schwartz, D., McFadyen-Ketchum, Dodge, K. D., Petit, G. S. & Bates, J. E.(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0, 87-99.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113-125.